

미카리의 미학적인 국어 독해법

목차

1.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2. 내가 생각하는 수능 국어의 본질
3. 정보처리전 팔레트(방)을 만드는 방법
4. 팔레트의 실전적 적용
5. 덩어리란?
6. 덩어리의 실전적 적용
7.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라보는 법
8. 4논리란?
9. 글을 마치며 남기는 말

1.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나의 독해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세상을 이항대립적이고, 문학적으로 바라보며 그렇기에 내 독해법도 이에 근원한다.

-내가 바라보는 세계는 분절된 부분집합들의 연속이다. 그 부분집합들은 각각 두 요소로 나누어져 그 이외의 요소로는 정의되지 않는다. 성별이라는 부분집합 속에서는 XX염색체와 XY염색체만 존재하며, 그 이외는 존재하지 않고, 빛이라는 요소의 저편에는 어둠이라는 요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철학속에서 이항대립적인 요소는 한 요소의 존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요소의 존재성이 담보되어야하는 서로가 의존적인 관계다. 예를 들면 빛이라는 요소의 존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즉 빛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어둠이 존재해야지만 빛이 존재할 수 있다. 빛으로만 세상이 가득차있다면 우리는 빛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책이라는 요소의 존재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책이 아닌 것이 존재해야 하는것도 하나의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이다. 우리는 언어로 세계를 정의내리며, 그 각각의 요소들은 이항대립에 근거해 서로 다른 명칭으로 정의내려지고, 우리는 그제서야 그것들의 존재 각각을 인지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나는 수능 국어 속 텍스트들을 이항대립적 부분집합 요소들의 집합으로 여긴다.

-둘째로, 내가 바라보는 세계는 분절된 미학적 이미지들의 집합이다. 발 밑을 적시는 들풀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밤하늘을 밝히는 아득히 먼 저편에서 피어오른 별들부터 지평선을 건너 찾아온 노을까지 나의 세계속에서 자연과 인간은 문학적인 요소이고, 그렇기에 나의 독서 습관 역시 텍스트를 통해서 문학적인 심상을 상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잔의 정경화라는 단어에서 붉게 빛나는 사과가 손에 들려있는게 머릿속에서 상상되고, 자유라는 단어에서 하얀 구체라는 심상이 상상된다. 나에게 텍스트란, 단순한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요소로서의 단어가 아니라 심층적인 의미로서의, 마음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오, 서술자의 세계관을, 서술자의 서술 당시의 표상을 그려내는 붓이다. 그렇기에, 나는 수능 국어 속 텍스트를 추상화되고 조각난 하나의 그림처럼 여긴다.

-이렇기에, 나는 수능 국어를 풀때도 이항대립적으로 상상하고, 문학적으로 표상하며 글을 읽어내려간다. 지금부터 이에 기반한 나의 독해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2.내가 생각하는 수능 국어의 본질 : 역산

-먼저 수능 국어란, 단순하게 표현하면 글을 읽고 글을 읽은 내용대로 선지를 판단해가며 문제를 푸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이 과정을 셋으로 분절한다. 첫째로, 글을 읽기전, 즉 정보처리 직전의 단계, 둘째로, 글을 읽는, 즉 정보처리의 단계, 셋째로 이 정보에 기반해서 선지를 판단하는 선지판단의 단계이다.

-글을 읽기 전에 우리는, 정보처리에 대비해 미리 어떻게 정보를 처리할지, 어디에 정보를 처리할지를 인지 해야하며 나는 이를 팔레트라는 요소를 도입해 해결했다.

-글을 읽는 단계에서 우리는, 정보처리를 위해 이 텍스트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어떻게 정보를 암기하며, 어떻게 유기적으로 텍스트끼리 연결해 의미를 만들지, 어떻게 표상할지를 알아야한다. 나는 덩어리라는 개념을 통해 유기적으로 텍스트간의 의미관계를 형성해 텍스트를 문맥에 따라 블록화했으며, 이미지화를 통해 표상해서 텍스트의 심층적인 의미를 끌어내려 노력했다, 또한 공간암기를 통해 세부 요소들에 대한 미시적인 암기를 행하려 시도했다.

-선지판단의 단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글을 읽으며 조합해오고 모아온 정보들을 기반으로 선지의 모순을 해결할지를 알아야하며, 평가원에서 기출을 통해 어떻게 선지 모순을 만드는지를 선지 구성 원리를 통해 이해해야한다. 나는 스스로 기출을 풀며 체득해온 요소들대로 이에 4 논리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정보처리의 과정에서, 우리의 암기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정보간의 우열을 가리며 위계를 나눠 어떤 정보는 암기하고, 어떤 정보는 이해하고 납득하며 인지 부하를 줄여야한다. 나의 경우에는, 핵심어, 강조문장, 세부요소로 세 위계로 분절해서 핵심어와 강조문장은 이미지화를 통한 납득과 이해로, 세부요소는 공간암기와 인덱스로 처리하는 문제풀이 프로토콜을 만들었다.

-내가 생각하는 수능 국어의 본질은, 어떻게 출제자의 사고를 최대한 모방하느냐이다. 출제자의 사고를 알아야 어떻게 지문 속 요소에서 선지가 만들어져 출제될지를 알고, 글의 일부로 다음 내용을 예측할수 있고,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그릴 수 있다.

-나는 이를 위해, 덩어리를 짓고 문장을 쪼개고, 이미지를 표상하며 출제자의 서술 당시의 사고를 역산하려고 노력했다. 출제자의 사고에 한발자국 다가갈수록 우리는 글의 다음 내용을 예측하고, 선지로 뭐가 나올지 예상하며 글을 읽고나서 글이 하나의 구조화된 그림처럼 여겨지는 국어의 본질에 다가갈수 있다.

3. 정보처리 전 팔레트(방)을 만드는 방법

-방금 말했듯이, 정보처리 전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할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할지와, 어디에 정보를 저장할지다.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면 정보처리시 정보들이 마구 뒤섞여 선지 판단시 불편해지고, 정보를 어디에 저장할지 모른다면 선지 판단할 때 어디서 정보를 가져올지 애매해진다. 이를 위해 나는 팔레트(방)을 예약한다는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수능 국어는 두괄식 구조이기에, 글을 읽기전, 또는 새로운 논의 범주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먼저 뒤에 나올 단어에 대해 설명하므로, 우리는 팔레트를 통해 정보처리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 숙련된 독자는 지문의 도입부에 정의된 단어를 보자마자 팔레트를 형성하는데 10초 가량이 걸린다. 고작 이 짧은 시간을 통해 글을 구조화할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다.

-나는 특정 단어를 볼 때, 그 단어에 연결되는 요소들의 팔레트가 그려진다. 수많은 기출 분석과 배경지식을 통한 단어간의 유기적인 연결에 기반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과두제적 경영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는가? 나의 경우에는 과두제적 경영의 정의, 과두제적 경영의 장점, 과두제적 경영의 단점, 과두제적 경영과 이항대립적으로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낼 다른 경영방법이 떠오른다. 기출에 따르면, 정의는 특정 단어가 시작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요소고, 장단점 또한 설명을 위해 필요한 장치이며, 이항대립적인 요소는 문제를 내기 위해 필수적인 질료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팔레트가 지문과 다를수도, 비슷할수도, 같을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 자동반사적으로 팔레트가 떠오르게 함으로써 인지부하를 최소한으로 줄여 팔레트가 잘못 만들어졌을 때의 리스크를 최소화할수 있고, 제대로 된 팔레트를 만들어 정보처리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팔레트를 기반으로 우리는 정보처리의 기반을 닦아야한다. 정의의 팔레트에 어떤 핵심어, 강조문장, 세부요소가 담길지, 장단점의 팔레트에 어떻게 담길지, 이항대립의 팔레트의 정보에 어떻게 담길지를 미리 준비하면 우리는 구조화된 정보처리에 다가갈 수 있다.

-예시를 들기위해, 정의의 방에서 만들어진 팔레트를 기반으로 한발자국 더 나아간 사고를 해보자. 우리는 정의를 보면 어떻게 이것이 패러프라이징되어 선지로 나올지를 생각해야한다. 예를 들면, 오िका와는 오르비에서 활동하는 유저다. 라는 문장에서 오िका와랑 오르비에서 활동하는 유저가 동치, 즉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A와 B가 어떻게 변형되어 선지로 나올지를 대비해야한다.

-둘째로, 이항대립의 방에서 만들어진 팔레트를 기반으로 한발자국 더 나아간 사고를 해보자. 수능 국어에서 이항대립이라는 요소는 두 요소간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또는 주장과 비판 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은 기출에 기반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A가 정의되고 설명될 때 자동적으로 ~A를 떠올리며 ~A의 정의와 설명이 A의 반대라는거를 인지해야한다. 이를 통해 이항대립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바로 선지를 찍고 넘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4. 팔레트의 실전적 적용

-추상적인 설명만으로는 내 독해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기반해 직접적인 예시를 도입해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한다. 내가 생각하는 팔레트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지문은 15수능 B형의 슈퍼문 지문이다. 다음 지문을 통해 팔레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해보자.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보게된다.

-위의 문장은 15수능 b형 슈퍼문 지문의 도입부다. 잠깐 멈춰서 팔레트를 정의해보자. 슈퍼문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가 떠오르는가? 나는 슈퍼문의 정의, 슈퍼문의 형성과정, 슈퍼문과 이항대립되는 다른 지구과학적 현상이라는 팔레트가 떠오른다. 실제 문장에서 적용해보자.

-슈퍼문의 정의라는 팔레트에서, 우리는 슈퍼문이 어떻게 정의될지, 또한 슈퍼문의 정의가 어떻게 패러프라이징되어 나타날지 생각해야한다. 이는 정의라는 팔레트에 대응되는 당연한 사고로, 실제로 정의 문장이 나오기전에 미리 생각하두어 실제로 나왔을 때 바로 머리에 각인할 수 있다. 뭐든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가볍게 음, 정의니까 패러프라이징 가능성 생각하자. 정도로 끝내자.

-둘째로, 슈퍼문의 형성과정에 대한 팔레트다. 기출에 근거하면, 형성과정은 보통 두괄식으로 제시되며, 과학지문이나 기술지문에서 먼저 각 요소인 A,B,C가 나타나고 각각 A에 해당하는 내용이 설명되고, 그 뒤로 B,C가 나열되는 형식을 띤다. 이를 통해 형성과정의 팔레트에서 우리는 형성과정의 순서, 즉 A부터 B,C,D가 먼저 나올걸 예상하며, 그 뒤의 각 형성과정의 세부 내용이 서술될걸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 현장에서는 가볍게, 음, 각 형성과정 순서대로 나오겠구나 음, 각 세부사항은 최대한 이해하고 납득하되 아니면 공간암기로 처리하자로 충분하다.

-셋째로, 슈퍼문과 이항대립되는 내용에 대한 팔레트다. 기출에 근거하면, 이항대립적인 요소는 지문을 풍성하게 만들고, 문제 내기 좋은 소스기에 자주 사용되며 이에 따라 실제로 이항대립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이항대립은 보통 차이점과 비판구조로 이뤄지며, 이런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보통 차이점을 위주로 서술될 수 있다는걸 인지해야한다. 현장에서는 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항대립한 내용이 나올수도 있겠다, 쟁점 확실하게 보고 차이점 분석해야지라는 사고로 충분하다.

-실제로, 이 지문에서는 세 요소가 모두 나왔지만, 전부 그대로 나오지 않고 정의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진 중간부에, 형성과정은 정의의 바로 뒤에, 이항대립은 최하단에 나온다. 이처럼 팔레트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애매하게 기능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이미 팔레트에 대해 생각한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글을 구조화하는데 이점을 가지게 된다.

5. 덩어리란?

-이제, 덩어리 나누기에 대해 알아봐야한다. 내가 정의하는 덩어리는 지문을 구조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이 과정을 통해 지문을 조각난 그림으로 여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히 수능 국어의 글은 절대 무지성으로 정보가 나열되지 않는다. 출제자는 정보의 체계를 가지고, 문장부터 문단, 문단부터 글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속에 자연스럽게 정보를 끼워넣는다. 우리가 출제자의 사고를 역산하기 위해 해야할 행동이 바로 여기 있다. 출제자가 어떻게 블록화해서 정보를 나뉘는지, 역으로 이를 추론해야된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직전에 설명했던 팔레트이다. 우리는 특정 단어를 보고 반응한뒤 팔레트를 만들었다. 정의, 이항대립, 장단점, 기술/과학지문의 구조 등 이런 팔레트들은 각각의 덩어리에 대응된다. 우리가 팔레트를 만든뒤, 실제로 글을 읽어 내려가다보면 멈춰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팔레트의 효능이다.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팔레트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올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아까 만들어둔 팔레트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때 멈춰하게 되는 순간,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의 글은 여러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있고, 각 덩어리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의 수능 지문이다.

-덩어리는 단순히 출제자가 나누는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으로만 나뉘지는 것이 아니다. 그 사이사이 멈춰 하는 바로 그 순간, 문맥에 따라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숙련되면, 팔레트가 패시브화되어 글을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팔레트를 생각해, 글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멈춰멈춰 하게된다. 이는 곧 순간적인 정보 처리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단절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직관적으로 덩어리가 지어진다.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글을 읽으면서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자연스럽게 특정 단어에 반응해 팔레트가 무의식속에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덩어리를 짓는 것이다.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글을 읽고나면 각각의 팔레트에 대응하는 덩어리들이 자연스럽게 칸막이처럼 나뉘지며, 더욱 쉽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유기적으로 독해할 수 있던 것이다. 한번 국어 잘하는 학생들은 떠올려 보아라. 나는 글을 읽으며 멈춰하던 순간이 있던가?

-덩어리를 만드는 습관을 통해, 글을 구조화하면 선지 판단시에도 더욱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다. 바로 특정 선지의 특정 단어에 뇌가 굽히는 느낌을 받을때이다. 이때가 바로 덩어리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우리의 뇌는 의식적으로 덩어리를 나누는 행동을 통해, 지문의 정보를 분절해서 인지하고, 글 자체를 조각난 그림처럼 보게된다. 출제자 역시 마찬가지다. 출제자는 선지를 낼 때, 한 덩어리 내부에서 정보를 조합해 선지를 만들때가 많다. 출제자가 생각하는 정보의 덩어리와 우리가 역산한 정보의 덩어리가 유사할수록 우리는 선지를 예측하기 쉬워지고, 실제 선지를 봤을때에도 순간적으로 독해의 잔재가 활성화되어 자연스럽게 선지를 판단할 수 있게된다.

6. 덩어리의 실전적 적용

-덩어리라는 추상적 개념을 엄밀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과두제적 경영 지문을 통해 예를 들어보겠다. 다음 사진으로 확인하자.

이항대립되는 덩어리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직 운영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흔히 과두제라 한다. 이는 정치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예시의 덩어리*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 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체적 경영'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런 기업에서 경영진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이항대립되는 덩어리*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 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다) *특징의 덩어리*

-위의 사진을 보자. 괄호 표시로 덩어리를 지어두었다. 첫 번째 덩어리와 두 번째 덩어리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는지 아닌지를 쟁점으로 이항대립이 처진다. 세 번째 덩어리와 네 번째 덩어리는 정의-예시의 관계로 덩어리가 연결된다.

-다섯 번째 덩어리와 여섯 번째 덩어리는 정의-특징의 관계로 덩어리가 연결되며, 이 두 덩어리와 일곱 번째 덩어리는 소수의 경영진이라는 쟁점을 두고 이항대립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 각 덩어리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출제자의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음, 먼저 과두제적 경영 아닌거로 화두 잡고, 그 뒤에 이항대립 때려서 말하고자 하는 바 강조하자. 그리고 그 뒤로 대구법마냥 다시 아닌거-과두제 구조로 학생들 이해 잘되게 하고, 중간중간에 각 경영 특징도 알려주자, 이런식으로 말이다. 이때 이항대립 상황에서의 쟁점을 보면 소수의 경영진의 여부이므로 이것이 선지로 나올걸 유추 가능하다

7. 이미지화란?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 독해의 본질이자 핵심이며, 근원인 이미지화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나의 무의식을 그대로 꺼내서 쓰느라 글이 흐트러지고 이해가 안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한다.

-처음에 말했듯이, 나는 세계의 정경을 분절된 문학적 이미지의 연속으로 본다. 이에 기반해서 자연스럽게 되는게 바로 이미지화다. 나는 텍스트를 보고 일렁이는 이미지를 이면에 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카리아는 인간을 자유와 행복을 쫓는 이성적인 인간으로 간주했다. 라는 문장에서 자유와 행복이라는 단어에 그림이 그려진다. 아이들이 넓은 들판에서 뛰노는 장면이 스노우 글로브처럼 안에서 흘러내리고, 팔레트안에, 베카리아가 선전하는 장면, 인간들이 향유하는 장면이 일렁이며 종이 위에 보인다. 이를 통해 순간적인 납득과 암기로 이어져서 속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23 9평 아도르노의 예술관 지문으로 예시를 들어보자. 아도르노는 대중예술을 비판하며 예술을 이면적인 사회상을 드러내야만 진정한 예술이라고 여겼다. 여기서 검은 구체가 일렁이는 그림이 순간적으로 그려지고, 이는 비정형적인 예술의 형태로 후에 드러난다. 뒤에 나오는 세잔의 풍경화와 농부가 바라보는 세계와 아도르노를 비판하는 문장에서 나는 사과와 붉은 색, 농부가 바라보는 초원과 들풀같이 텍스트 자체에서 색감을 느꼈다. 그후 이게 바로 주관적 인식에 따른 미메시스라는 문장을 보며 순간적으로 전율이 일어났다. 아도르노는 부정적인 이면에서만 예술을 찾을 수 있다는건 비정형적인 예술의 형태만 그리는 것이고, 이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원리와 연결되어 세상을 이면적으로만 바라보는 아도르노, 저 들풀 아래에 깔린 벌레들이 잡아먹는 먹이와의 투쟁만 바라본다. 허나 예술의 형태는 정형적인 형태도 존재한다. 이는 고대부터 이어진 정경의 관찰로, 저 푸른 초원과 들풀, 피어오르는 꽃잎, 뛰어노는 여인과 아이들처럼 정형적인 형태의 예술도 존재한다. 아도르노가 검은 구체를 손에 쥐고, 그 옆에는 세잔이 사과를 들고 농부가 바라보는 자연의 정경이 팔레트 위에 놓여있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그림으로 일렁이다가 7번 선지를 보고 광 머리가 울리는 경험을 했다.

-25 6평 에이어 지문에서도, 나는 굴을 느꼈다. 전통적인 윤리학과 그에 대해 비판하는 에이어에 대해서 굴이 느껴지고, 텍스트 위에 굴이 일렁였다. 전통 윤리학과 에이어의 윤리학은 다른 범주에 놓여있지만, 같은 윤리학이라는 범주속에서 굴이다. 전통 윤리학의 모순은 굴껍질에 대응되고, 에이어가 비판하는 것은 굴껍질을 까는 행위에 대응된다. 이게 텍스트 위에 무의식적으로 그려졌다.

-이처럼, 나는 비문학 텍스트 자체를 문학적인 피양세로 바라보고, 이것이 나의 독해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팔레트니 덩어리니 하는건 다 이걸 위한 걸다리에 불과하고, 나는 텍스트 위에서 그림을 본다. 그림을 기억한다. 여러분도 반복적인 독해를 통해 지문에서 그림을 보고, 글 자체를 추상화된 조각난 그림들의 집합으로 여기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

8. 4논리란?

-이는 내가 기출을 4회독 정도 했을 무렵에 체득한 선지 판단 원리로, 대부분의 사실이나 평가원이나 선지 모순을 만드는 방식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이것들이 단일로 나오거나, 서로 조합해서 나온다,

-첫째로, 있음의 논리다. 있음의 논리란 글에 없는 내용으로 선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글에서는 렐트리는 서울대 졸업생이다. 라는 문장이 선지에서는 렐트리는 성균관대 졸업생이다. 라는 문장으로 없는단어로 대체되서 나온다는 의미이다.

-둘째로, 정도의 논리다. 정도의 논리란 글에 있는 내용이나 그 정도가 다른 선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글에서 하에은은 연대 입구로 뛰어갔다. 라는 문장이 선지에서는 하에은은 연대 입구로 걸어갔다. 로 정도의 차이로 대체되서 나온다는 의미이다.

-셋째로, 순서의 논리다. 순서의 논리란 특히 과학지문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글의 내용의 순서나 인과를 바꾸거나 아예 모순인 인과를 집어넣거나, 상관없는 내용을 사이에 집어넣는 식으로 변주되어 선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먼저, 나는 술을 마시고나서 담배를 폈다. 그리고 나는 폐암에 걸려 사망했다, 그래서 가족들은 영영 울었다. 라는 문장에서 나는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셨다. 라고 순서가 바뀌어서 선지에서 적거나, 나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폈다. 그래서 가족들은 영영 울었다로 인과 모순을 만들어서 쓰일 수 있다.

-넷째로, 범주의 논리다. 범주의 논리란 다른 범주의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범주의 내용을 비판하거나, 다른 범주의 내용끼리 엮는 등으로 선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므로 물리적 실체이다. 라는 선지는 정의라는 추상적 범주를 물리적 범주와 엮었으니 아웃이고, 어텀킴은 오르비에서 컨설팅 욕을 하다가 산화당했다. 뿔뿔이는 이를 비판했다 라는 지문에서, 선지로는 뿔뿔이는 슈능샤프가 분탕치는걸 비판했다. 이러면 범주 아웃인거다.

-이처럼, 나는 팔레트로 정보를 담을 기반을 마련하고, 덩어리로 실제로 문장들을 연결짓고, 이미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납득하며, 선지로 와서는 4논리로 선지들을 정보에 맞게 처리해 나간다. 이게 내 독해 프로세스고 나는 이에 따라서 독해해왔다.

9. 글을 마치며

-처음으로, 내 암묵지를 명시지로 전환해 모두에게 드러내보는 경험은 색달랐다. 독해를 하면서 더욱 명확하고 깔끔하게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내 무의식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적어내려갔기에 오류가 있거나, 추상적이거나, 글을 존나게 못쓰거나, 애매하게 써진 부분이 있을 것이다. 댓글로 많은 비판과 조언 부탁한다

-질문이 있으면 나라도 괜찮으면 언제라도 답변할거니 댓글 달아주길 바란다